

연어류

구시로 주변에서는 연어(학명: *Oncorhynchus keta*), 곱사연어(학명: *Oncorhynchus gorbuscha*), 송어(학명: *Oncorhynchus masou*)라는 3 가지 연어류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구시로 주변 바다에서 우세한 연어류의 일종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주황색의 큼직한 알입니다. 연어는 오호츠크해, 북태평양, 베링해로 나가 약 4 년에 걸쳐 성숙합니다. 그후 고향으로 돌아가 딱 한 번 산란한 후 죽게 됩니다. 매년 9 월에서 12 월 사이에 10 만 마리가 넘는 연어가 구시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곱사연어는 세계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연어류로 태평양과 오호츠크해에서 서식합니다. 홋카이도에서 곱사연어는 구시로에서 시레토코에 이르는 일본 동쪽 해안가의 강에서 산란합니다. 산란기 동안 수컷은 등에 혹이 생기며, 이빨이 커집니다. 이는 암컷이 낳은 알을 수정시킬 때 경쟁하는 수컷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송어는 일생의 절반을 강에서 보내고 절반을 바다에서 보낸 다음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고 죽습니다. 송어의 분포 범위는 한정적이며, 성숙한 후 송어는 북일본 연안부에 머뭅니다.